"4월 20일(음력)은 검은모래 눈 뜨는 날"

〈양력 5월17일〉

만성리해수욕장 때이른 찜질객

지난 17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 때아닌 '피서객'들이 몰렸다.

절기보다 일찍 피서객이 몰린 것은 전국 유일의 검은 모래 때문이다.

검은 모래는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사하는데 이 해수욕장의 검은 모래는 방사율이 일반 모래에 비해 높아 혈액순환을 돕고 땀 분비를 촉진, 미용과 신경통, 위장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음력 4월20일이면 '검은 모래가 눈을 뜬다'고 하는데 이는 모래 속 깊이 생겼던 뜨거운 지열이 이날 모래 위로 올라온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다.

관광객들은 파라솔 아래서 얼굴만 내민 채 모래를 파고 누워 검은 모래 찜질을 즐겼다.

유이순(65·여·광주 서구 양림동)씨는 "소문을 듣고 올해 처음 왔는데 쑤셨던 어깨와 허리 통증이 없어지고 몸도 가뿐해 진 것 같다"면서 "친구들과 매년 와야 겠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 거북선축제' 시민들 외면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운영도 미숙

여수경실련 모니터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호국문화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시민참여는 배제된 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지난 3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제40회 거북선 축제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시민들은 축제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운영자들만 아는 축제가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또 행사 프로그램 배치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연계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웠고 매년 변함없는 가장행렬과 상업적인 난장 등은 축제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여수 경실련 관계자는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축제 준비와 참여자를 고려치 않은 현재의 운영구조로는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축제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 소재개발, 완성도 제고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진남제보존회가 주관하던 거북선 축제를 내년부터 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남제보존회는 해마다 진남제를 치러왔으나 일반인들이 '진남(鎭南)'의 뜻을 잘 모르는데다 임진·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이 이 고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2004년부터 명칭을 거북선 축제로 바꿨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섬 학생·학부모등 초청 광양제철소 견학 체험

광양제철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17~18일 이틀 동안 여수시 남면 안도리 여안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초청, 공장현장 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광양제철소 설비기술부 직원들이 지난 95년 시프린스호 유조선 좌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여수시 안도(安島) 섬마을 학생들에게 제철소 견학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자리로 여안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학부모 등 75명이 참석했다.

이날 여안 초등학교 학생들은 홍보영화를 관람하고 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의 환경설비들을 둘러 봤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지역 단신/

순천경찰 자가용 5부제 시행

순천경찰은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자가용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가용 5부제는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월요일에는 차량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1, 6, 화요일에는 2, 7인 차량이 쉬는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특히 순천경찰은 자가용 함께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자전거 이용하기, 차량대기시 공회전 금지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컴퓨터, 복사기, TV 등 대기상태시는 전원 플러그를 제거하고, 사무실 '한 등 끄기' 운동도 함께 시행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686-8584)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광 양	792-8111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보 성	853-9700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순 천	746-8111	영 광	351-1004	담 양	383-8111
고 흥	833-9900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녹 동	842-212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구 례	783-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곡 성	362-8111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